

10

버려야 할 관행, 지켜야 할 원칙

뉴스 기사는 저널리즘의 현실을 스스로 말한다. 시민의 신뢰가 추락하는데도 기사의 품질이 제자리걸음 하는 이면에는 잘못된 취재 보도 관행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시급히 바뀌어야 할 대표적 관행을 짚어보고 올바른 보도 원칙을 제시한다. 이 기획은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고민하는 '좋은저널리즘연구회' 회원들이 돌아가며 집필한다.

질문이 사라진 한국의 젊은 기자들

그들은 저널리스트인가? 타이피스트인가?



이완수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장면 1

지난 9월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출근하는 현장 풍경. 두 명의 기자가 사무실 건물로 들어서는 조 후보자에게 다가가 대표로 질문을 하고, 나머지 기자는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노트북 자판을 부지런히 두드린다. 일부 기자는 스마트폰으로 말을 녹음한다. 질문에 나선 두 명의 기자가 하는 질문도 서로 연결되는 질문이 아니라 파편화된 질문들이다.

#장면 2

지난 9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며 마련된 기자 간담회 자리. 조국 후보자가 미리 준비된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기자들은 각자 노트북으로 그 말을 받아 타이핑하기에 바쁘다. 개별 기자가 하는 질문도 연결

없이 제각각이다. 기자 한 명이 한 번 이상의 질문을 하는 장면도 보이지 않는다. 질문이 서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의문만 더 늘어날 뿐이다.

위의 두 장면은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하다. 이 취재 장면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든다. '기자는 취재원의 말을 전달하는 메신저인가?',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가?', '기자의 한두 가지 질문으로 모든 의문이 풀리는가?' 그리고 더 들어가면 '기자는 누구인가?', '저널리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벌어진 한국 기자들의 이런 취재 풍경은 오늘날 한국 저널리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요즘 한국 기자들의 낮익은 취재 풍경 중 하나가 기자회견장에서, 사무실에서, 복도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노트북으로 취재원의 말을 열심히 받아쓰거나 스마트폰으로 녹음하는 장면일 것이다. 냉정히 말하면, 한국 기자들은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저널리스트(journalist)가 아니라 취재원의 말을 단순히 받아쓰거나 녹음하는 타이피스트(typist) 혹은 녹취자(recoder)다. 취재



지난 9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자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원의 말을 부지런히 받아쓰는 기자들의 모습은 언론 선진국에서는 드문 풍경이다.

펜과 취재 수첩은 기자의 상징이었다. 갖가지 정보를 취재 수첩에다 빼곡히 적는 필기 행위는 기자들의 오랜 취재 관행이었다. 인터뷰한 내용은 물론 현장에서 보고 들은 모든 정보를 펜으로 기록하고, 수첩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끊임없이 묻고, 되묻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그 정보의 사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 확인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젊은 기자들은 질문으로 취재를 시작하는 저널리스트가 아닌, 취재원의 말을 열심히 받아쓰는 속기사(速記士)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질문 없는 기자는 기자가 아니다

질문은 모든 뉴스의 출발점이다(Scanlan, 2013). 질문 없이 만들어지는 뉴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기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기자가 수집하는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질문을 통해 만들어진다. 질문을 하지 않는 기자는 기자가 아니다. 기자의 첫 번째 의

무는 진실을 밝혀내는 데 있다(Kovach & Rosenstiel, 2014).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이라는 치열한 저널리즘 규율이 뒤따라야 한다.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질문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절차다.

저널리즘 연구자인 빌 코바치(Bill Kovach)와 톰 로젠스텔(Tom Rosenstiel)이 지적한 것처럼 기자가 최우선으로 충성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기자들은 바로 시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대신 확인해 알려줘야 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이다. 질문이 빠진 뉴스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는 없다. 기자가 질문하지 않으면 의심은 사라지지 않고, 의혹은 더 커진다. 기자가 취재원의 말만 받아쓰면 취재원의 일방적 주장과 의견만이 뉴스로 전달될 뿐이다.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가짜뉴스(fake news)도 기자의 치열한 질문이 없이 취재원의 일방적 의견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취재원의 주장과 의견이 아니라 사건 속에 숨겨진 진실이다.

진실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자는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질문은 기자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질문은 어떠한 정보가 믿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진실 확인의 수단이자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질문 없이 만들어진 뉴스는 의미 없는 뉴스다(Kovach & Rosenstiel, 2014). 누군가가 말한 내용을 따옴표로 옮기기만 해서는 의미 있는 뉴스가 될 수 없다. 저널리즘의 근본 가치인 진실을 밝히는 뉴스가 될 리도 만무하다. 우리가 의미 없고, 진실과 먼 뉴스를 읽거나 볼 이유는 없다. 모든 보도 자료가 유튜브에 올라가는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기자의 역할은 코바치와 로젠스틸의 말대로 의미 부여자(sense maker)이다.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은 단순히 논평하는 해석자가 아니다. 저널리즘은 사실을 수집해 단순히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종합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어떤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물어서 맥락과 해석을 곁들여 전달해야 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기본 가치다. 이를 위해 기자들은 취재원에 접근하고, 권력자를 심문하며, 정보를 파고들어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기자가 감시자나 경비원이 되어 질문을 제기하거나 파고드는 활동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도 이런 직업적 의무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기자들은 차분히 생각하고 따져 물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신 기자들은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설익은 정보를 게이트키퍼 과정 없이 내보내고, 포털사이트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를 처리하는 데 더 집중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누군가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가져와 곧바로 전달하지 않으면 취재 경쟁에서 밀린다는 부담도 있다. 기자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람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전달받는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강요받는다.

체계적 질문이 좋은 뉴스를 만든다

진실은 복잡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이다(Kovach & Rosenstiel, 2014). 기자가 한 순간의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서 진실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이 취재원의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해서 저널리즘 의무를 다했다고 말하긴 어렵다. 어떤 사실은 기자가 씨줄과 날줄로 엮어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진실에 도달하게 된다. 진실은 텍

스트 속에 있지 않고, 콘텍스트(맥락) 속에 숨어있다(Waisbord, 2018). 이는 기자가 의문의 구멍을 질문을 통해 촛촛히 메워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뉴스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좋은 뉴스는 질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뉴스의 완성은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달려있다. 좋은 연구가 정교한 방법에 의해 완성되듯이, 좋은 뉴스는 체계적인 질문을 통해 만들어진다. 필 마이어(Phil Meyer)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저널리즘스쿨 교수의 지적대로 기자들은 취재 과정에 사회과학적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 질문도 마찬가지다. 일방적인 주장을 정교한 질문을 통해 맥락화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질문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뉴욕타임스 전직 기자였던 미르타 오지토(Mirta Ojito)는 인터뷰 질문과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인터뷰할 때 취재원과 채팅(chatting)을 한다.” 오지토의 말은 채팅하듯이 취재원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의문이 들면 계속 묻는다는 것이다. 한국 기자들은 어떤가? 그들은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가? 의문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않는가?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언론학자인 칩 스캔란(Scanlan, 2013)은 기자가 인터뷰 취재를 할 때 유념해야 할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방법은 개방형 질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자는 ‘어떻게(how)’, ‘무엇을(what)’, ‘어디에서(where)’, ‘언제(when)’, ‘누가(who)’, 그리고 ‘왜(why)’를 중심으로 질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완성된, 그리고 정확한 기사를 만들기 위해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건의 실체는 육하원칙의 요소들을 확인하는 과정

“

뉴스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좋은 뉴스는 질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뉴스의 완성은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달려있다. 좋은 연구가 정교한 방법에 의해 완성되듯이, 좋은 뉴스는 체계적인 질문을 통해 만들어진다. 일방적인 주장을 정교한 질문을 통해 맥락화하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질문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끊임없이 물어서 의문을 줄여나가는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두 번째는 폐쇄형 질문이다. 이 방식은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다. 이 방법은 기자가 직접 알고 싶은 내용을 꼭 집어서 묻고 싶을 때 사용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는가?”와 같은 질문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이중(double-barreled) 혹은 삼중(triple-barreled)의 질문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경찰은 왜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쏘았습니까?”, “당신이 명령을 내렸습니까?”라는 질문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다지 좋은 질문 방법은 아니다. 이중, 삼중으로 겹치는 질문은 취재원이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은 피하고, 덜 난감한 질문에 답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Scanlan, 2013). 이는 진실을 밝혀내야 할 기자 입장에서 보면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질문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취재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꼬박꼬박 답변하겠는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그를 성실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와 같은 중의적인 질문은 가급적 피하라고 조언한다. 그런 중의적 질문은 비체계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기자 역시 한 번에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취재원도 두 가지 질문에 모두 친절하게 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 취재원이 말하고 싶지 않은 범법행위에 연루돼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다. 기자들이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내는 것도 좋은 질문 방법은 아니다. 기자의 임무는 질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 답변을 얻어내는 것이다.

기자는 정확한 기록자이자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

취재원에게 답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질문을 쏟아내는 것은 한심한 취재 방식이다. 질문을 했으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기다려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침묵을 싫어한다. 그 침묵을 어떤 식으로든지 메우려고 하므로 기다리면 그들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 워싱턴포스트 기자인 브래디 테니스(Brady Dennis)의 말대로 침묵은 때로 대화의 문을 열게 한다.

그렇다면 한국 기자들은 어떤 질문 방식으로 취재를 할까? 안된 이야기지만, 앞에서 기술한 가장 나쁜 방법으로 인터뷰를 하고, 질문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한국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질문하는 법을 보고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는 첫 번째 방법인 개방형 질문 방식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육하원칙에 입각해 사실을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질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공식 기자회견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 기자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집요하게 연속적으로 묻는 법이 별로 없다. 모든 질문이 다 제각각이다. 파편

적인 질문을 하다 보니 의문만 더 커진다. 의문이 풀리지 않고, 답변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반박 질문을 하고, 계속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 사회과학적 질문 방식이다.

한국 기자들이 비교적 자주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두 번째 질문 방식인 폐쇄형이다. 그러나 이 질문 방식은 사안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지만,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질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니 사실이 파편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가장 빈번한 질문 방식이 세 번째의 이중 또는 삼중의 중의적 질문 방식이다. 이 방법은 스캔란의 말대로 취재원이 답을 할 필요성을 차단하는 질문 방식이다. 취재원으로부터 무엇을 알아내고 싶은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한다.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내는 방식도 한국 기자들의 취재 현장에 자주 보인다. 이 경우는 기자가 시원하게 질문은 하지만, 취재원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얻지 못한다. 기자는 질문했고, 취재원은 침묵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기자회견장에서 치열하게 묻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미국 기자들의 모습은 한국 기자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불편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 미국 기자들의 용기를 보면 사실 부럽기까지 하다.

기자가 맥락을 갖추고, 진실에 이르는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질문 없이 뉴스가 나올 수 없지만, 나쁜 질문 방식으로 좋은 뉴스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과거에는 뉴스가 ‘나를 믿어라(Trust me)’라고 하는 시대였다. 그것이 의견이든 주장이든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독자가 ‘나에게 보여주세요(Show me)’라고 말하는 시대다. 사건을 단순히 기

록하고 전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의문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검정과 질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자는 사실의 정확한 기록자임과 동시에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질문 없이는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없고, 진실을 드러낼 수도 없다.

나는 한국의 젊은 기자들이 사실을 받아 적는 타이피스트가 아니라, 사실을 체계적으로 묻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회과학적 식견을 갖춘 저널리스트가 되길 기대한다. 그래야만 사실에 진실의 날개가 달리고, 가짜뉴스 같은 사회적 유령이 사라질 것이다. 📰

참고문헌

Kovach, B. & Rosenstiel, T.,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Three Rivers Press(CA), 2014.

Scanlan, C., <How journalists can become better interviewers>, Poynter, 2013.3.4, <https://www.poynter.org/reporting-editing/2013/how-journalists-can-become-better-interviewers/>

Waisbord, S., <Truth is what happens to news: On journalism, fake news, and post-truth>, 《Journalism studies》, 19(13), 1866-1878, 2018.